

與 지도부 ‘친윤’ 대동단결… 다양성 확보·외연확장 과제로

당대표, 최고의원 친윤계 인사 석권
당원 100% 투표… 민심 괴리 우려
김 대표, 사무총장 등 당직 인선 신중

국민의힘 새 지도부가 ‘친윤’(親尹 석열계) 인사 중심으로 꾸리지면서, 외연 확장이라는 과제를 안게 됐다.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힘의 다수 의석 확보 차원에서 ‘집토끼’인 지지층뿐 아니라 중도층까지 외연 확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번 새 지도부가 책임당원 100% 투표로 선출된 데 따라 민심과 당심의 괴리가 있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김기현 당대표는 취임 첫날인 9일 국회에서 첫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이번 지도부 임무는 내년 총선 압승과 윤석열 정부 성공”이라며 “당 지도부는 지금 이 순간부터 1분 1초도 허투루 사용하지 않고 내년 총선 준비에 나서야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김 대표는 민생 행보에 주력할 계획이다. 취임 후 첫 현장도 민생과 관련한 곳으로 갈 것이라는 게 김 대표 계획이다.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 해결로 중도층을 포섭할 것이라는 구상으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시

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김 대표는 취임 후 첫 행보인 국립서울현충원 참배 직후, 보수 정당 계열 전직 대통령인 이승만·박정희·김영삼 전 대통령 묘역뿐 아니라 진보 정당 계열인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도 참배했다.

김 대표는 현충원 참배 직후 방명록에 ‘오직 민생, 다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를 만들겠습니다’라는 글을 남겼다. 첫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지난 정권의 반민생법·반경제법으로 민생이 발목 잡히고 있다. 마냥 지난 정권 탓만 할 수 없다”며 “국민의힘을 격려하는 국민

과 당원들의 힘을 모아 민생을 챙기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외연 확장 차원에서 이른바 ‘친윤계 당직 인선’ 우려도 불식하는 데 노력하는 모습이다. 9일 새 지도부 상견례 성격의 오찬 회동을 한 뒤 기자들과 만난 김 대표는 ‘친윤’ 일색 지도부라는 평가에 “일색이란 평가는 자기가 다 정해놨나 보다”고 반박했다.

당 대표 당선 직후인 지난 8일 진행된 기자회견에서도 김 대표는 “당직 인선에 ‘연포탕’(연대·포용·탕평)이라는 기본 원칙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

와 관련 김 대표는 계파 색채가 열린 구자근 의원을 당 대표 비서실장에 내정하기도 했다.

사무총장·수석대변인·비서실장 등 당직 인선도 김 대표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당 안팎에서 우려하는 대로 친윤 인사가 대거 등용되면 전당대회 과정에서 불거진 내용이 격화될 가능성 때문이다.

김 대표는 최고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의견을 듣고 최고위와 협의를 거쳐 월요일(13일)쯤 주요 당직 인선을 마무리할 생각”이라고 했다. 새 지도부 오찬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지역 안배 등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김 대표는 “이제부터 생각해 봐야 한다”고 했다.

김 대표가 해결해야 할 것은 또 있다. 전당대회 과정에서 생긴 극심한 갈등 수습이다. 특히 황교안 전 대표 측은 전당대회 직후인 지난 8일 오후 유튜브 채널 ‘황교안TV’에 ‘국민의힘 경선 투표조작 뼈박 증거’라는 영상을 올렸다.

황 전 대표는 9일 “캠캠에서 그러한 이야기를 보고했다. 통상적이지 않으니 한번 검토할 생각”이라며 문제가 있으면 대응할 것이라는 방침을 밝혔다. 사실상 전당대회 결과 불복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이준석 전 대표 측과의 갈등도 김 대표가 풀어야 할 숙제로 꼽힌다. 전당대회 과정에서 이 전 대표와 함께했던 ‘천아용인(천하람·허은아·김용태·이기인)’을 두고 친윤계 후보들은 강하게 비판했고, 감정의 골도 깊은 상태다. 특히 일부 최고위원들은 이 전 대표 측을 배제해야 할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어 김 대표가 갈등을 풀어 내용까지 수습할지 관심이 쏠린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metroseoul.co.kr

尹 “울산, 세계 최고 첨단산업 허브 될 수 있도록 지원”

울산 경제인 간담회

“60년간 국가 기간산업 이끌어 온 곳
도시철도 타당성 조사 올해안에 추진”

윤석열 대통령이 울산을 방문해 “지난 60여년간 대한민국 산업 수도로서 우리 경제발전을 이끌어 온 울산이 세계 최고의 첨단산업 혁신 허브가 될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9일 기공식을 가진 에스오일(S-OIL) 사한 프로젝트 일정을 비롯해 울산 경제인 오찬 간담회와 현대자동차 수출 부두를 방문해 수출 상황을 점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울산항만공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울산 남구 울산항만공사에서 열린 울산 경제인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열린 경제인 간담회에서 “울산은 5·16 이후인 1962년도에 특정공업지구로 지정된 후 60여년 동안 우리나라 주요 수출 품목인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을 중심으로 국가 기간산업을 이끌어 온 곳”

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오늘 기공식을 가진 에스오일 사한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현대자동차 전기차 공장 신설, 고려아연 이차전지 소재 생산 공장 신설·증설을 비롯해 울산에 미래 신산업에 대한 투자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시대를 대표하는 산업 혁신의 허브, 울산의 모습은 기업인들과 울산시가 그동안 열심히 노력해 온 결과”라며 “정부가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지원해 나가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수소차 안전인증센터와 전기·수소차 핵심 부품 지원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하겠다”며 “조선 산업에 대한 원활한 인력 확보를 지원하고, 전기·수소·자율운행 선박 등 미래

선박분야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지난 대선 공약이었던 울산 교통망 확충과 관련해서도 “도시철도 1호선과 2호선의 타당성 조사를 올해 안에 완료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새로운 지방시대 지역 발전의 핵심은 무엇보다 지방의 기업 투자를 촉진해 주민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충분히 제공하는 것”이라며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민간 주도 성장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울산 경제인들은 ▲울산시 우회도로 신설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도입 ▲그린벨트 해제 ▲조선업 인력 확충 ▲중소기업 석박사 인

재 확보 ▲설비 투자 세액 공제 확대 등을 건의했다.

경제인 간담회를 마친 윤 대통령은 국내 최초 직류기반 하이브리드 전기차 진선인 ‘대화호’를 타고 지난해 역대 최대인 540억달러(약 71조3000억원) 수출로 우리 경제를 뒷받침한 자동차 산업의 대표적인 수출 현장인 현대자동차 수출 부두를 방문했다.

김영국 현대차 상무는 윤 대통령에게 “지난해 실적 169만대에서 2023년 계획은 186만대로 10% 신장했다”며 수출선적 부두 현황과 전기차 신공장 건설 개요 등을 보고 했다.

이후 윤 대통령은 정외선 현대차그룹 회장의 안내를 받으며 자동차전용선인 ‘글로벌스 스카이하’ 갑판으로 이동해 황창국 지마린서비스 대표로부터 최대 7500대의 자동차 선적 등 현황 보고를 받았다.

/박정익 기자 pathfinder@

김한길 “‘힘센 충남’ 가장 든든한 친구이자 동지될 것”

(국민통합위원장)

국민통합위-충남도-충남도의회 MOU

김한길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장이 “지리적으로 역사적으로 우리나라 중심인 충남이 국민통합의 중심에서 분열과 대립을 넘어 화해와 통합의 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달라”고 밝혔다.

국민통합위는 9일 충청남도청에서 충청남도·충청남도의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국민통합위 충남지역 협의회를 개최했다.

국민통합위는 충남도·충남도의회는 상호협력력을 통해 우리 사회에 내재한 상처와 갈등을 치유하고 국민통합을 증



국민통합위는 9일 충청남도청에서 충청남도·충청남도의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국민통합위 충남지역 협의회를 개최했다. 왼쪽부터 김태홍 충남도지사, 김 위원장, 조길연 충남도의회 의장. /국민통합위원회

진하기 위한 관련 국민통합 정책 추진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에 따라 ▲국민통합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 및 사업 추진 ▲국민통합 증진을 위한 조례·규칙 제정 등 입법 지원 ▲지역협의회 구성·설치 및 운영을 위한 협조 ▲지역 간 연계·교류 프로그램 추진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우리 국민통합위 역시 ‘대한민국의 힘인 힘센 충남’의 미래를 위해 가장 든든한 친구이자 동지가 되겠다”고 약속했다.

국민통합위는 이날 충남도·충청남도의회와 업무협약 체결 후 충남지역협의회 위원 25명을 위촉하고 ‘탄소중립경제특별도’라는 주제로 지역협의회 첫 회의를 개최했다.

/박정익 기자

대통령실 “尹 대통령·김건희 여사, 16일 방일”

“기시다 총리 정상회담 예정”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일본 정부의 초청에 따라 오는 16일부터 17일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9일 “윤 대통령은 방문 기간 중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방문으로 12년간 중단됐던 한일 양자 정상 교류가 재개된다”며 “이는 한일관계 개선과 발전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이번 방일을 통해 한일 양국이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안보, 경제, 사회문화의 다방면에 걸친 협력이 확대되고, 양국 국민 간 교류가 한층 활성화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다만, 대통령실은 “방일 기간 중의 상세 일정과 관련해서는 현재 일본 측과 조율하면서 준비 중에 있다”며 “김 여사와 기시다 유코 여사의 친교 행사도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의 이번 방문에 재계 총수들이 동행해 양국 정상과 함께 오찬·만찬을 가질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박정익 기자